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음 9월 21일) 제16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대병원 권역 응급센터 전격 취소

중증 소아환자 수술 않고 비상진료체계 부실 운영

정부, 과태료 등 중징계 6개월 후 재검토하기로

"이것이 전북의 우수상품" 2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4회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개막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초청인사들이 비지니스관을 둘러보며 전북의 우수상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정부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두 살 배기 김 군의 수술을 미뤄 아이의 사망을 초래한 전북대병원에게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다친 2세 김 군은 전문 의료진과 수술실 부족을 이유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할 공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수차례 거절당하다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결국 수술 중 숨졌다.

복지부 조사 결과 2세 남아가 처음 도착했던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과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부상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와 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인근 지역의 다른 중증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후 지정취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자를 전원 의뢰 조치한 전남대병원도 권역 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이 병원은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해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이 병원 역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뒤 재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대병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유지됐다.

다만 병원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해 6개월 후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외 원광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5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12개 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됐지만 아직 개소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 한 것으로 조사돼 처분을 피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도록 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서 제작시설 최초 발굴

고려시대 초기청자 이곳에서 제작했다

청자 제작 공방지 감독시설 전물지 등 오늘 발굴현장 공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에서 발굴된 출토유물인 청자잔탁.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추진한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高敞 龍溪里 靑瓷窯址) 발굴조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 초기청자를 제작했던 공방지(工房址)와 감독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建物址) 등이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재)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초기청자 가마와 관련된 공방지와 대형 건물지 및 청자편,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는 고려 시대 청자 발생기의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가마와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갑발(匣鉢)과 가마벽체, 청자 등이 폐기되어 형성된 퇴적구릉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가마와 퇴적구릉에 인접해 있는 공방지는 '연토장(청자 태토 저장), 시유공(유약 바르는 곳), 건조장(그릇 건조)' 등 청자제작과 관련한 시설이 확인됐다.

특히, 각 작업공간은 갑발을 칸막이로 사용하여 작업공간을 고맥이 시설로 분할하고 있어 초기청자의 제작이 각 공정에 따라 분업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건물지는 담장시설 내부에 'ㅋ'자의 배치형태를 띠고 있다.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는 1983년 1차 발굴조사 당시에 1022년을 의미하는 거란의 연호 '태평 임술(太平壬戌)'이 적힌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자가마와의 관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건물지의 기단채움토에서 '중간단계(중국식)해무리굽완' 청자가 출토됨에 따라 가마의 운영기간 중 신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를 통해 공방지와 건물지 등 관련 시설이 확인됨으로써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초기청자 제작공정과 운영 실태를 밝히고, 초기 청자요지 경관 복원의 구체적인 교두보 확보와 한국 도자사(陶瓷史)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성과는 21일 오후 2시에 공개되는 발굴현장(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1-1임 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16 전주비빔밥축제 개막…

'맛보자!… 느끼자!… 즐기자!'

'2016 전주비빔밥축제' 개막식이 오후 6시, 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록밴드 '국카스텐'이 열띤 공연을 벌이고 있다.

23일까지 열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2016 전주비빔밥축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전주시와 2016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음식도시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주비빔밥축제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꿈꾸는 소년' 이창선 대금연주자의 공연과 2017 FIFA U-20월드컵 전주시 홍보대사인 국카스텐의 화려한 축하무대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10회째를 맞이한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23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맛보자! 느끼자! 즐기자!'라는 주제로 열리며, 품격 높은 전주음식을 소재로 한 도시형 문화관광 종합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이 비빔밥을 비롯한 231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고 느끼도록 구성했으며, 관광객과 가족, 친구, 단체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비빔밥을 만드는 '모여라! 비빔밥'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비빔밥의 유래를 상황극과 함께 소개하고 비빔밥의 역사를 재미있게 담아내게 되는 '비빔전설' 프로그램과 음식관련 학생, 전문가 등 800여명이 참여해 기량을 뽐내는 전국요리경연대회, 현장에서 직접 셰프들의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판매경연대회도 펼쳐진다. /김영재 기자